

<좌담> ◆ Specialized Society and Library

社 會 的 專 門 化 와 圖 書 館



일시 : 1972년 4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장실

참석 : 강주진(한국도서관협회장)

이상규(국립중앙도서관장)

조태룡(독서신문사 편집국장) · 사회

◆……편집자주 : 오늘 날과 같이 고도로 전문화 되어가는 사회에 있어서 모든 생활정보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히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은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내용이 전문화 될 수록 더욱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는 단체조직내의 세분조직과 같이 사회발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정보망이 형성되고 그 조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 도서관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에 도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회에서는 제8회 도서관주간에 즈음하여 새로운 진로를 마련하기 위해 좌담회를 마련하고 여기에 게재합니다……◆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도록……

사회 : 먼저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8회 도서관주간을 맞이하여 전문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도서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사회의 전문화와 도서관”이란 주제를 가지고 두분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도서관주간을 주관하시는 강회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도서관주간의 의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주진 :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는 도서관이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모두 도서관이 이렇게 운영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

은 도서관이 소외당하고 있는 증거라고 하겠습니까. 도서관의 기능이 옛날에는 책을 보관하고 그 책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이었는데 현대와 같이 문헌의 홍수시대에 처해 있는 도서관에서는 연구하는 사람에게 안내 역할까지 하고, 자료를 조사 검색 분석해서 초록을 작성하고 색인을 작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도서관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도서관의 기능이 확대되었는데도 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국제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수행하는 기능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잘 이루어 지지 않고, 또한 매년 실시하는 도서관주간 행사가 독서를 장려하는 일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도서관주간만이라도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일반에게 인식시키고, 행정당국에서도 지금과 같이 도서관을 운영하게 하지 말고 도서관의 근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몽을 곁쳐서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이 주간을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까.

사회 : 강회장님께서 도서관의 일반적인 개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생각으로 제1차적인 문제점은 도서관에 몸담고 있는 분의 적극적인 자세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좀 더 액티브하게 적극적인 상태에서 동적으로 도서관을 끌어내서 사회에 인식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또 그와 같이 하기 위해 도서관주간이 설정되었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사회의 전문화는 개인의 정신개발에서

이상규 : 도서관이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의부적인 면보다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봅니다. 도서관의 기능이 장서의 기능보다 Information Supply의 기능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바람직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전문화 되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인은 개인의 정신개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책을 안 읽는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날 우리의 사회적인 조류가 물질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면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어야 하는 것과 같이 사회가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각 개인이 지적인 정보자료를 획득하여 정신문화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서관이 존재하고, 또 도서관주간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많은 자료의 비치가 시급

사회 : 현대 사회가 고도로 전문화되고 또 세분되고 있는데 대처하기 위한 도서관측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서관에서 교양도서만 갖추는 것을 능사라고 생각하던 종래의 관념에서 벗어나 전문화되는 속도에 발맞추어 전문적인 도서를 수집, 비치하여 이용자에게 이용시킬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규 : 오늘 날 도서관이 외면당하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은 대학의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도서관에 의존하는 것이 없어서 아니고 교수들이 사달라고 하는 책과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것도 들 수가 있습니다. 각급 대학에서 재정난에 허덕이다 보면 자료구입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히 도서관은 이용자들에 외면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료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자료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이용자들로부터 무시되는 큰 요인이 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행정부에서 현재보다 더욱 많은 예산의 할애와 정책의 수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 도서관은 일반 국민생활과 완전히 밀착되어서 Information Center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볼때 우리의 실정은 어떠할까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도서관을 설치

강주진 : 도서관이 생활과 직결되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우리 나라에는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말도 안되는 독서실이란 것이 있습니다.



(강주진 회장)

이것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현상으로도 국가에서는 공부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장소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어나갈 젊은이들이 공부하고자 하는데도 제대로 공부할 곳이 없어 돈이라도 내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1개군에 1개의 도서관을 설치하고, 도회지에는 중하류층이 살고 있는 부락에 독서실을 겸한 공공도서관을 설치해 놓으면 이 도서관은 문화의 센터가 되고 향토문화를 개발하는 본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서 생활과 직결되는 도서관이 될 수 있으며 국가 행정수행의 지혜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상규 관장)

사회 : 결국 도서관을 증설하는 문제가 나오는군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는 다르지만 지금 거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일고 있는데 이 운동에 앞서든, 병행하든 정신자원 개발을 위한 독서운동과 도서관 운동이 새마을운동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다리를 고치고 길을 고치고 벽에 회칠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정신운동에서 시작하여 이 정신운동의 근간을 도서관의 충분한 활용을 통해 얻어진 후에는 저절로 새마을운동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배룡 선생)

